

# 데카르트, 환각지, 동물의 몸 자기 앎

김성환\*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심리철학, 동물철학

**주요어** 데카르트, 환각지, 동물, 지각, 정념, 솔방울 샘, 의식, 무의식, 비의식, 몸 자기 앎

### 요약문

나는 환각지를 비롯한 넓은 뜻에서 지각 또는 정념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을 분석해 인간과 동물에 대한 그의 견해 사이에 정합성이 있다고 논증한다. 첫째,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 정기와 솔방울 샘이 있으니 까 적어도 논리로는 환각지를 비롯한 모든 지각 또는 정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환각지와 지각 또는 정념은 영혼이 있는 인간에게는 의식되지만 영혼이 없는 동물에게는 의식되지 않는다. 셋째, 모든 지각 또는 정념이 뇌에서 생긴다면 인간 뿐 아니라 동물도 의식되지 않는 몸 자기 앎을 가질 수 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지각 또는 정념은 의식되지만 동물의 지각 또는 정념은 의식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환각지와 지각 또는 정념에 대한 그의 견해 사이에는 아무 모순도 없다.

---

\* 대전대 역사·문화콘텐츠학부

## 1. 환각지

환각지(phantom limbs)는 질병, 사고 등으로 절단되거나 없어진 팔다리가 여전히 몸에 붙어 있거나 몸의 다른 부분들과 어울려 움직인다고 느끼는 감각이다. 이 감각은 대부분 고통이지만 가려움, 경련, 몸짓, 따듯함, 차가움, 얼얼함 등일 수도 있다. 환각지를 설명하는 현대의 주된 이론은 절단된 신경 말단이 자극을 받은 상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남아 있는 팔다리의 끝부분에 있는 신경 말단이 자극을 받으면 없어진 팔다리가 자극을 받은 때와 비슷한 신호가 뇌에 전달되고 뇌는 이 신호를 없어진 팔다리에서 생기는 감각으로 해석한다.<sup>1)</sup>

데카르트(R. Descartes, 1596~1650)는 편지, 『제일철학에 관한 성찰(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1641, 아래서 『성찰』), 『철학 원리(Principles of Philosophy)』(1644) 등에서 모든 감각이 뇌에서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환각지를 예로 든다. 데카르트는 풍부한 생리학 지식과 해부 경험<sup>2)</sup>을 갖춘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록 환각지라는 현대 의학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 증상을 잘 알고 있다. 또 그는 동물 정기(animal spirits)와 솔방울 샘(pineal gland)에 기초한 자기만의 생리학 원리로 환각지를 설명한다.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영혼과 몸의 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다. 정신과 물체가 서로 다른 실체라는 데카르트의 형이상학 이원론과 인간의 영혼과 몸의 상호 작용에 대한 그의 견해가 어떻게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느냐가 핵심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해

---

1) 성호경 외 (1989), 478쪽.

2) 데카르트는 신부이며 철학자 메르센(M. Mersenne, 1588~1648)에게 보낸 편지에서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 베살리우스(A. Vesalius, 1514~1564)를 능가할 정도로 해부와 관찰에 많은 시간을 기울였다고 자신감을 보인다. Kenny, A. (1970), 63~64쪽.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정념론(*The Passions of the Soul*)』(1649), 특히 넓은 뜻에서 지각(perception) 또는 정념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문제이고, 데카르트는 인간이 영혼과 몸의 결합체이며 지각 또는 정념은 영혼과 몸의 상호 작용으로 생긴다고 본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 답이다.<sup>3)</sup>

나는 한 가지 특별한 접근법을 통해 환각지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에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구한다. 그 접근법은 인간의 영혼과 몸의 상호 작용에 대한 데카르트의 견해가 영혼 없이 몸만 있는 동물<sup>4)</sup>에 대한 그의 견해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동물에게도 냄새, 소리, 색, 배고픔, 목마름, 아픔 등 외부 대상과 내부 욕구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는 넓은 뜻에서 지각 또는 정념뿐 아니라 두려움, 바람, 기쁨 등 좁은 뜻에서 정념도 허용한다. 넓은 뜻에서 지각 또는 정념은 좁은 뜻에서 정념도 포함한다.<sup>5)</sup>

데카르트는 1649년 2월 5일 영국 철학자 모어(H. More, 1614~1687)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 개 등의 “소리나 몸짓이 우리에게 노여움, 두려움, 배고픔 등 그들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알리는”<sup>6)</sup> 방법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1646년 11월 23일 뉴캐슬 후작 캐븐디쉬(W. Cavendish, 1593~1676)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다. “비슷하게 개, 말, 원숭이에게 시키는 모든 일은 그들의 두려움, 바람, 기쁨의 표현이고 따라서 그들은 이런 일을 아무 사유 없이(without any thought) 할 수 있다.”<sup>7)</sup> 『정념론』에서 데

3) 인간의 몸과 영혼의 결합과 상호 작용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김선영 (2013), 「해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인간 본성의 문제와 정념」, 187~239쪽.

4) 이 글에서 “동물”은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가리킨다.

5) 데카르트의 『정념론』에서 좁은 뜻에서 정념은 몸만 있으면 생기는 정념이고 넓은 뜻에서 정념은 몸과 영혼이 모두 있어야 생기는 정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좁은 뜻에서 정념은 두려움, 바람, 기쁨처럼 영혼과 관련된 정념이고 넓은 뜻에서 정념은 좁은 뜻에서 정념, 냄새, 소리, 색 등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 배고픔, 목마름, 아픔 등 내부 상태에 대한 지각을 모두 포함한다. Descartes, R. (1985b), 341~342쪽.

6) Kenny, A. (1970), 244~245쪽.

카르트의 분류에 따르면 말, 개 등이 가지는 배고픔은 넓은 뜻에서 지각 또는 정념이지만 노여움, 두려움, 바람, 기쁨은 좁은 뜻에서 정념이다. 그는 좁은 뜻에서 정념을 “영혼과 관련된 지각”<sup>8)</sup>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동물에게 영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방법 서설(Discourse on the Method)』(1637)에서 동물은 “이성 영혼(rational soul)” 뿐 아니라 “생장 또는 감각 영혼(vegetative or sensitive soul)”도 없으며 “심장에 빛 없는 불 하나만 촛불처럼 켜고”<sup>9)</sup>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영혼 없는 동물에게 좁은 뜻에서 정념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커팅햄(J. Cottingham)은 데카르트가 동물에게 정념을 허용하는 이유는 그가 영혼과 몸의 이원론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데카르트는 좁은 뜻에서 정념이 영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몸과 결합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한다.<sup>10)</sup> 커팅햄은 데카르트의 이 주장을 좁은 뜻에서 정념은 인간의 영혼이 몸과 섞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 곧 인간 본성의 동물 측면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커팅햄은 데카르트가 동물에게서도 정념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1)</sup>

그러나 나는 커팅햄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의 해석은 영혼 없는 기계인 동물이 왜 정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이 몸과 섞여 있고 인간이 동물과 같은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념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에서 커팅햄이 엄밀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동물이 정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뿐이다. 데카르트가 영혼과 몸의 이원론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는 동물이 왜 좁은 뜻에서 정념도 가지는지를 설명할

---

7) Kenny, A. (1970), 207쪽

8) Descartes, R. (1985b), 337쪽.

9) Descartes, R. (1985a), 134쪽.

10) Descartes, R. (1985b), 339쪽.

11) Cottingham, J. (1978), 559쪽.

수 없다.

나는 환각지를 비롯한 넓은 뜻에서 지각 또는 정념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을 분석해 인간과 동물에 대한 그의 견해 사이에 정합성이 있다고 논증한다. 첫째,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 정기와 솔방울 샘이 있으니까 적어도 논리로는 환각지를 비롯해 좁은 뜻에서 정념을 포함하는 넓은 뜻에서 모든 지각 또는 정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환각지와 지각 또는 정념은 영혼이 있는 인간에게는 의식되지만 영혼이 없는 동물에게는 의식되지 않는다. 셋째, 모든 지각 또는 정념이 뇌에서 생긴다면 인간 뿐 아니라 동물도 의식되지 않는 몸 자기 앎(bodily self-awareness)을 가질 수 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지각 또는 정념은 의식되지만 동물의 지각 또는 정념은 의식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환각지와 지각 또는 정념에 대한 그의 견해 사이에는 아무 모순도 없다.

## 2. 솔방울 샘

데카르트는 1637년 10월 3일 벨기에의 신학자이며 과학자 프로몬두스(L. Fromondus, 1587~1653)가 자신에게 제기한 의문에 관해 역시 벨기에의 신학자이며 과학자 플렘피우스(V. Plempius, 1601~1671)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감각이 뇌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 환각지를 제시한다.

“[프로몬두스]는 내가 [『굴절 광학(Dioptric)』(1637)의] 30쪽에서 모든 감각이 뇌에서 생긴다고 인정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한다. 이 점에 관해서 나는 모든 의사와 외과 의사들이 내가 그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왜냐 하면 그들은 팔다리가 절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서 여전히 고통을 느낀다고 자주 생각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손에 심한 상처를 입어 서서히 진행되는 괴저 때문에 팔 전체를 절단한 소녀를 알고 있었다. 외과 의사는 소녀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녀를 좀 더 쉽게 다루려고 눈을 가렸고 팔이 있던 자리를 붕대로 감아 몇 주 동안 그녀가 자기 팔을 잃었다는 것을 모르게 했다. 그동안 소녀는 손가락, 팔목, 팔뚝 등에서 다양한 고통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는 분명히 그녀의 팔에서 신경의 조건 때문이었다. 이 신경은 이전에 그녀의 뇌에서 나와 그녀 몸의 그 부분들에 나아가 있었다. 만일 고통의 느낌 또는 [프로몬두스]가 말하듯이 감각이 뇌 바깥에서 생긴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sup>12)</sup>

소녀가 절단된 팔의 손가락, 팔목, 팔뚝 등에서 느끼는 고통의 감각은 환각지다. 이 환각지는 고통의 감각이 손가락, 팔목, 팔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녀의 팔이 절단되기 전에 뇌에서 나온 신경은 팔뚝, 팔목, 손가락까지 뻗어 있었다. 이 신경은 팔이 절단된 후에도 남아 있는 팔의 끝부분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뇌에 고통의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팔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고통의 감각은 뇌에서 생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환각지는 고통 뿐 아니라 모든 감각도 뇌에서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견해는 현대 생리학에 비추어 보아도 옳다. 현대 생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뇌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뇌로 듣는다. 코로 냄새 맡는 게 아니라 뇌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는 게 아니라 뇌로 맛보며 살로 느끼는 게 아니라 뇌로 느낀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면 눈, 귀, 코, 혀, 살이 있어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낄 수 없다.<sup>13)</sup>

환각지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도 절단된 신경 말

---

12) Kenny, A. (1969), 37~38쪽.

13) 성호경 외 (1989), 454~482쪽.

단의 자극을 환각지의 원인으로 보는 현대의 주된 이론과 비슷하다. 그는 『성찰』에서 어떤 줄 ABCD 중 한 끝 D를 당기면 다른 끝 A도 움직이고 D를 전혀 당기지 않은 채 중간에 있는 지점 B나 C 중 어느 하나를 당겨도 A가 움직이는 똑같은 결과가 생긴다고 말한다.<sup>14)</sup> 그렇다면 환각지도 같은 논리, 즉 팔다리부터 뇌 사이에 있는 신경의 어떤 부분이 자극을 받더라도 뇌는 팔다리가 자극을 받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 신경이 발에서 뇌로 나아가면서 종아리, 허벅지, 허리, 등, 목도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발의 부분이 당겨지지 않고 중간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당겨지더라도 발이 다칠 때와 똑같은 운동이 뇌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마음은 똑같은 고통 감각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모든 감각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한다.”<sup>15)</sup>

환각지를 비롯한 모든 감각이 뇌에서 생기는 생리 메커니즘은 1629~1633년 사이에 쓰였으나 사후에 출판된 『세계(The World)』(1662), 『방법 서설』에 이미 나와 있지만<sup>16)</sup> 『정념론』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생리 메커니즘은 현대 생리학에 비추어 보면 엉터리다. 현대 생리학에 따르면 동물 정기는 없고 술방울 샘도 모든 감각 신호를 수용하는 공통 감각 기관이 아니며 수면 패턴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샘일 뿐이다.<sup>17)</sup> 그러나 데카르트가 설명하는 감각의 생리 메커니즘은 인간과 동물의 환각지에 대한 그의 견해 사이의 정합성을 따지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 Descartes, R. (1984), 60쪽.

15) Descartes, R. (1984), 60쪽.

16) 『세계』의 마지막 장인 「인간론」과 『방법 서설』의 5부에 설명되어 있다.

17) 폭스 (2008), 266~267쪽.

감각, 『정념론』의 용어로 넓은 뜻에서 지각 또는 정념의 생리 메커니즘에서 핵심은 동물 정기와 솔방울 샘의 움직임이다. 동물 정기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C.)와 갈레노스(Galenos, 129~199)의 생리학부터 근대까지 계속 쓰인 개념이고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신비한 성질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데카르트는 동물 정지에서 신비한 성질을 깨끗이 지우고 물체의 성질만 남긴다. 그에 따르면 동물 정기는 심장의 열에 의해 증류된 피의 미세한 기체이고, 온몸에 퍼져 있고 가는 관처럼 생긴 신경을 타고 돌아다닌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마치 스카이댄서라 부르는 광고 조형물이 공기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뇌에서 신경을 타고 나아간 동물 정기가 팔다리 근육에 힘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솔방울 샘은 두 대뇌 반구 사이에 있는 간뇌에 매달려 있고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색, 소리, 냄새, 맛, 뜨거움, 아픔, 배고픔, 목마름, 기쁨, 노여움, 두려움 등 넓은 뜻에서 지각 또는 정념은 동물 정기와 솔방울 샘의 움직임에 의해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막대기를 보면 막대기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의 두 눈에 하나씩 두 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두 이미지는 동물 정기의 움직임 형태로 시신경을 타고 두 뇌로 들어가 두 이미지를 만든다. 그 다음 왼 뇌의 이미지는 왼 뇌에서 솔방울 샘으로 연결되는 구멍들을 통해 역시 동물 정기의 움직임 형태로 솔방울 샘에 전달되고 오른 뇌의 이미지도 같은 방식으로 솔방울 샘에 전달된다. 이 때 두 이미지의 상응하는 두 점은 솔방울 샘의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하나뿐인 솔방울 샘에는 이렇게 만난 점들의 집합인 한 이미지만 생긴다. 그리고 영혼이 솔방울 샘의 통합된 이미지를 수용하면 우리는 막대기의 이미지를 하나로 볼 수 있다.

환각지를 비롯한 모든 지각 또는 정념이 뇌에서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 이경희는 「데카르트의 생리학에서 ‘환각지’의 문제」(2014)에서 환각지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은 “인간을 다만 정신 하나만 가지

고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sup>18)</sup>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영혼 뿐 아니라 몸도 가지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뜻에서 이경희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불분명한 점이 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은 영혼과 몸의 결합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환각지는 영혼과 몸의 상호 작용으로 생길까 아니면 몸의 작용만으로 생길까? 이 물음에 대답하면 환각지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이 지닌 한 가지 의의를 더 밝힐 수 있다. 그 의의는 데카르트가 인간 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몸 자기 앎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동물의 지각 또는 정념과 환각지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환각지에 대한 한 가지 관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의 다음 관찰은 마음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몸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단지 뇌 또는 아마 뇌의 작은 한 부분, 즉 ‘공통’ 감각 기관을 지닌다고 말해지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뇌의 이 부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몸의 다른 부분이 다른 조건에 있더라도 같은 신호를 마음에 보낸다.”<sup>19)</sup>

“뇌의 작은 한 부분”은 『성찰』의 영어 번역판 주에도 쓰여 있듯이 술방울 샘이다.<sup>20)</sup> 술방울 샘이 어떤 상태, 예를 들어 팔목에서 생긴 고통을 동물 정기의 움직임 형태로 전달받은 상태에 있으면 팔목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거나 팔목이 아예 없는 다른 조건에 있더라도 술방울 샘은

18) 이경희 (2014), 203쪽.

19) Descartes, R. (1984), 59~60쪽.

20) Descartes, R. (1984), 59쪽.

같은 고통의 신호를 마음에 보낸다. “‘공통’ 감각 기관”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이고 다섯 가지 개별 감각 기관을 통합해 모양, 운동 같은 사물의 특징을 지각한다고 알려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 감각 기관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데카르트 시절에는 공통 감각 기관이 뇌에 있다는 믿음이 퍼졌고 데카르트는 이 기관이 “아마” 솔방울 샘에 있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솔방울 샘은 마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관이다. 그는 솔방울 샘이 눈, 코, 귀, 혀, 살에서 오는 모든 신호가 도달하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통 감각 기관의 후보로는 최적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솔방울 샘도 몸의 일부다. 그러니까 “마음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몸의 일부가 마음 또는 영혼에 직접 작용하고 솔방울 샘을 제외한 몸의 다른 부분들은 모두 솔방울 샘을 통해 영혼에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을 함축한다.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첫째, 솔방울 샘이 영혼에 직접 작용한 결과는 무엇일까? 둘째, 솔방울 샘이 직접 작용할 영혼이 없는 동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물음에 대한 답은 의식(consciousness)이고, 둘째 물음에 대한 답은 동물도 의식되지 않는 환각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물음부터 접근해 보자.

현대 생리학에 따르면 솔방울 샘은 거의 모든 척추 동물에게 있다. 데카르트도 동물에게 솔방울 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 그는 1640년 1월 9일 프랑스의 의사이며 점성술사 메소니에(L. Meyssonnier, 1611/12~1673)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다. “우리가 관찰하듯이 [솔방울] 샘은 뇌의 다른 부분들과 달리 동물보다 인간이 더 작다.”<sup>21)</sup> 또 그는 1640년 3월 11일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다. “나는 그 샘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갓 죽은 동물에서 그 샘을 별 어려움 없이 잘 찾았다.”<sup>22)</sup> 동물은 솔방울 샘 뿐 아니라 동물 정기도 가지고 있다. 동물 정

21) Kenny, A. (1970), 70쪽.

22) Kenny, A. (1970), 72쪽.

기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지닌다고 알려져 있었다.

동물도 동물 정기와 솔방울 샘이 있으니까 인간과 마찬가지로 환각지를 비롯한 모든 지각 또는 정념을 가질 수 있다. 초원에 사는 영양은 사자가 다가오면 눈으로 보고 사자인 줄 알고 두려워서 도망친다. 영양도 사자의 시각과 두려움의 정념을 가진다. 데카르트도 인정한다. 그는 1646년 11월 23일 뉴캐슬 후작 캐번디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다. “만일 까치에게 하녀가 오는 걸 보고 안녕이라고 말하게 가르치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까치가 이 낱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한 가지 정념의 표현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까치가 그 말을 할 때마다 한 조각 음식을 얻으면 그 말은 먹고 싶은 바람의 표현이 될 것이다.”<sup>23)</sup> 그에 따르면 까치는 바람(hope)이라는 정념을 가질 수 있다. 또 그는 모어와 캐번디쉬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았듯이 개, 말, 원숭이 등에게 노여움, 두려움, 바람, 기쁨 등 좁은 뜻에서 정념을 포함하는 넓은 뜻에서 지각 또는 정념을 모두 허용한다.

데카르트의 눈으로 보면 지각과 정념은 모두 솔방울 샘의 특수한 움직임 자체다. 영양도 사자를 보면 두 눈을 통해 동물 정기의 움직임 형태로 왼 뇌와 오른 뇌에 들어온 두 이미지가 솔방울 샘에서 만나 한 이미지로 통합된다. 동물 정기의 움직임을 전달받은 솔방울 샘의 점들의 특수한 집합, 곧 솔방울 샘의 특수한 움직임이 영양에게 사자의 시각을 형성한다. 무서움이나 바람의 정념도 데카르트에게는 솔방울 샘의 특수한 움직임이다. 그에 따르면 영양의 솔방울 샘에 형성된 사자의 이미지나 까치의 솔방울 샘에 형성된 하녀의 이미지는 다시 동물 정기를 움직이고 이 동물 정기 중 일부가 심장으로 가서 심장의 구멍들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다른 일부는 몸의 다른 부분을 자극해 피를 심장으로 보내게 만

23) Kenny, A. (1970), 207쪽.

든다. 이 때 심장에서 생긴 또 다른 동물 정기가 신경을 통해 뇌로 들어가면 슬방을 샘에 다른 특수한 움직임이 생긴다.<sup>24)</sup> 이 특수한 움직임이 두려움이나 바람의 정념이다.<sup>25)</sup>

데카르트는 동물에게 환각지가 있다고 명료하게 주장하지 않지만 논리로는 인정해야 한다.<sup>26)</sup> 데카르트에 따르면 환각지도 넓은 뜻에서 지각 또는 정념에 속하기 때문에 환각지와 지각 또는 정념의 생리 메커니즘은 똑같이 동물 정기와 슬방을 샘의 움직임이고, 환각지와 지각 또는 정념은 슬방을 샘의 특수한 움직임 자체다. 데카르트는 적어도 논리로는 동물에게도 환각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 4. 의식과 비의식

동물과 인간이 지각 또는 정념과 환각지를 공유한다면 차이는 무엇일까? 데카르트에 따르면 그 차이는 인간에게는 있지만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에서 비롯한다.<sup>27)</sup>

---

24) Descartes, R. (1985b), 341~342쪽.

25)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은 영혼 빼고 몸만 생각하면 동물과 다르지 않다. “나는 인간의 몸을 뼈, 신경, 근육, 정맥, 피, 살 등을 갖춘 일종의 기계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몸은 설사 마음이 없더라도 의지, 따라서 마음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움직임과 똑같은 움직임을 할 수 있다.” Descartes, R. (1984), 58쪽.

26) 현대 의학은 뇌 영상 기법으로 영장류 같은 동물에게도 환각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뇌 피질의 부분들이 지닌 기능을 연구하는 외피 국소 해부학(cortical topography)은 뇌자기도(Magnetoencephalogram)나 자기 공명 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과 같은 뇌 영상 기법으로 뇌로 가는 신경 구심로가 차단되거나 다리가 절단된 영장류의 대뇌 피질에서 지형 변화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얻고 이를 인간의 환각지에 대한 뇌 영상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동물에게도 환각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Ramachandran, V. and Hirstein, W. (1998), 1603쪽.

27) 데카르트가 동물에게 영혼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근대 자연 철학 연구자 해리슨(P. Harrison)은 데카르트가 동물에게 물체 영혼을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 정기가 같은 시간에 도망칠 때 쓰는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으로 나아간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솔방울] 썸에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 움직임을 통해 영혼은 이 행동을 느끼고 지각한다(feel and perceive). 이런 방식으로 몸은 영혼의 도움 없이(without any contribution from the soul) 기관들의 배치만으로 움직여서 도망칠 수 있다.”<sup>28)</sup>

영양과 인간은 모두 사자를 보면 동물 정기가 시신경을 타고 솔방울 썸에 전달되어 사자의 이미지를 하나로 본다. 또 영양과 인간은 솔방울 썸의 이 움직임에 의해 움직인 동물 정기 중 일부가 다리 근육으로 나가면 “영혼의 도움 없이” 눈, 심장, 솔방울 썸, 다리 등 기관들의 배치만으로 도망칠 수 있다. 영양과 인간은 다리 근육이 움직일 때 움직인 동물 정기가 다시 솔방울 썸에 특수한 움직임을 일으킨다. 이 때 영혼이 있는 인간은 솔방울 썸의 움직임을 통해 도망치는 행동을 “느끼고 지각한다.” 그러나 영혼이 없는 동물은 솔방울 썸의 움직임이 있더라도 도망치는 행동을 느끼고 지각할 수 없다.

영혼이 어떤 행동을 “느끼고 지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느끼고 지각한다”는 것이 “의식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둘째 물음에 대한 답부터 말하면 솔방울 썸이 영혼에 직접 작용한 결과는 의식이다. 의식은 현대 심리 철학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의식에 대한 가지 설명 방식은 의식되지 않는 일차 경험을 다시 지각하거나 사유할 때 의식이 생긴다는 것이다.<sup>29)</sup>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

허용한다고 본다. 그는 데카르트가 플렘피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물의 영혼은 그들의 피일 뿐”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든다. Harrison, P. (1992), 223쪽. 그러나 여기서 피는 비유이므로 해리슨의 견해는 옳지 않다. 자세한 설명은 김성환 (2015 출판 예정), 1장을 참고.

28) Descartes, R. (1985b), 342~343쪽.

29) 이 설명 방식은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higher-order theory of consciousness)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면 의식은 운전이 아니라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다. 현대 인지 심리학에 따르면 의식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특성이 있다.<sup>30)</sup> 그렇다면 운전은 의식이 아니라 비의식(the nonconscious)에 의해 이루어진다. 운전자는 초보가 아니라면 도로 상황을 보는 눈부터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밟는 발까지 일일이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에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면 나의 의식은 재빨리 운전으로 돌아와 발이 브레이크를 밟게 만든다. 운전하는 행동에 대한 나의 의식은 의식되지 않은 운전 행동에 다시 주의를 집중할 때 생긴다.

현대 인지 심리학에서 비의식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 억눌린 욕망들의 저장소인 무의식처럼 좁은 뜻이 아니라 자신이나 주변 환경의 자극을 알지 못하는 심리 상태라는 넓은 뜻으로 쓰인다.<sup>31)</sup> 넓은 뜻에서 비의식의 심리 상태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가득 차 있다. 휴대폰을 보면서 걸을 때 걷는 행동,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자판을 두드릴 때 손가락의 움직임,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듣는 행동 등은 모두 의식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 의식은 휴대폰을 보거나 모니터를 보거나 공부를 하는 데 쓰인다. 걷는 행동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음악을 듣는 행동을 의식하려면 휴대폰 보기, 모니터 보기, 공부하기에서 의식을 거두어들여 걸거나 자판을 두드리거나 음악을 듣는 행동을 다시 지각하거나 생각해야 한다.

---

라 부른다.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은 의식이 생길 때 작용하는 고차 경험을 내성(introspection)과 같은 고차 지각으로 보는 견해(Armstrong, D. (1981), Lycan, W. (1996))와 개념에 기초한 고차 사유로 보는 견해(Rosenthal, D. (1986), Carruthers, P. (2000))로 나뉜다.

30) 인지심리학에서 이 이론은 바즈가 의식에 관한 “전역 게시판(global workspace)” 또는 “칠판” 모델로 제시한다. Baars, B. (1988), 72~88쪽. 바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평가는 이정원 (1998)을 참고.

31) 코흐 (2006), 222쪽

데카르트의 표현을 빌면 내 영혼은 내가 운전하는 행동을 느끼고 지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에 할머니가 나타나면 내 영혼은 휴대폰 통화를 멈추고 재빨리 운전하는 행동을 느끼고 지각한다. 또 내 영혼은 휴대폰을 보면서 걷거나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걷는 행동이나 음악을 듣는 행동을 느끼고 지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자기 가로등이 나타나거나 음악이 꺼지면 내 영혼은 걷는 행동이나 음악을 듣는 행동을 느끼고 지각한다. 따라서 영혼이 어떤 행동을 느끼고 지각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은 영혼이 의식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을 의식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데카르트가 말한 느끼고 지각하는 것은 의식되지 않은 일차 경험을 다시 지각하거나 사유할 때 의식이 생긴다는 현대 심리 철학의 한 가지 설명 방식과 일치한다. 데카르트는 영혼이 어떤 행동을 느끼고 지각한다고 말하지만 영혼은 이 행동을 직접 느끼고 지각하지 않는다. 영혼이 직접 느끼고 지각하는 것은 영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솔방울 샘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솔방울 샘의 움직임 자체가 지각 또는 정념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어떤 행동을 느끼고 지각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은 영혼이 솔방울 샘의 움직임으로서 어떤 지각 또는 정념을 느끼고 지각한다는 뜻, 곧 지각을 다시 지각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각을 다시 지각하는 것은 의식되지 않은 지각으로서 일차 경험을 다시 지각해 의식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눈으로 볼 때 영혼 없는 동물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난다. 동물은 인간처럼 지각 또는 정념과 환각지를 가질 수 있지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지각 또는 정념과 환각지를 의식할 수 없다. 동물도 동물 정기와 솔방울 샘이 있기 때문에 지각 또는 정념과 환각지를 가질 수 있지만 의식되지 않는 지각 또는 정념과 환각지를 가질 뿐이다. 동물이 가지는 의식되지 않는 경험은 우리가 치과에서 마취하고 이를 드릴로 갈 때 겪는 경험과 같다. 드릴이 “앵” 하는 소리를 내며 이로 접근하면 우리는 얼굴 근육이 쉴룩거리거나 팔다리가 뻗뻗해

진다. 그러나 제대로 마취하면 아프지 않다. 얼굴 근육이 쉴룩거리거나 팔다리가 뻗뻗해지는 경험은 현대 생리학에서 고통 반응이지만 고통이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비의식 고통 반응이라 부른다.<sup>32)</sup> 의식되는 고통 반응은 마취하지 않은 채 생니를 드릴로 갈 때 눈앞에 번개가 번쩍이며 “앗!”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반응이다.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비의식을 논의할 수 있는냐는 문제는 현대 데카르트 연구자들 사이에 논쟁거리다. 김선영은 「데카르트에서 무의식」(2014)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무의식(inconscient)의 논의 가능성을 정당화한다.<sup>33)</sup> 김선영에 따르면 “영혼과 몸의 결합체에게서 영혼의 본성인 생각이 의식과 동일시할 수 있다면, 영혼과 몸의 결합체는 그 자신이 바로 의식되지 않은 것들의 장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인간에게 영혼만 있다면 의식만 있고 무의식은 있을 수 없지만 몸도 있기 때문에 무의식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선영은 데카르트의 기억 개념을 영혼의 기억과 몸의 기억으로 구분하고 인간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경험하는 정념들이 몸에 흔적으로 남는데 이 몸의 기억은 의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sup>35)</sup>

나는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무의식 또는 비의식의 논의 가능성을 김선영처럼 인간에 국한하지 않고 동물로 넓혀서 보면 거부할 수 없는 답이

32) 감각과 감정을 의식 차원과 비의식 차원으로 나누는 것은 현대 뇌 과학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다마지오(2007), 39-49쪽, 101~117. 르두(2006) 4장을 참고.

33) 김선영에 따르면 데카르트가 영혼의 본성으로 여긴 사유를 의식으로 보면 무의식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반성 의식으로 보면 논의의 여지가 없다. 앞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은 라포르트(J. Laporte)이고 뒷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은 발(J. Wahl)과 라캉(J. Lacan)이다. 김선영 (2014), 269~270쪽. 김선영은 무의식을 라캉처럼 주체의 반성 의식에 대립하는 뜻으로 쓰지 않고 의식과 대칭하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내가 비의식이라 부르는 것과 거의 일치하지만 김선영의 표현을 살린다.

34) 김선영 (2014), 289쪽.

35) 김선영 (2014), 282~288쪽.

나온다고 생각한다. 데카르트가 동물에게 허용하는 지각 또는 정념은 모두 의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동물에게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각 또는 정념과 환각지를 허용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동물의 지각 또는 정념과 환각지를 모두 의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데카르트는 동물에게 영혼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의식도 허용하지 않는다. 의식은 영혼이 솔방울 썬의 움직임 자체로서 의식되지 않는 지각을 다시 지각해야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동물 보호론자들이 데카르트를 공공의 적으로 삼는 이유도 그가 동물에게 의식을 허용하지 않고 육식과 동물 실험을 정당화한 원흉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가 개의 사지를 나무 테이블에 못 박고 생체 해부 실험을 한 까닭은 동물이 고통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과 영혼의 상호 작용에 대한 데카르트의 견해가 영혼 없이 몸만 있는 동물에 대한 그의 견해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답도 이제 나온다. 만일 인간이 동물처럼 몸만 있다면 모든 경험이 비의식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의식 경험도 가질 수 있고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비의식 경험만 가질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의 지각 또는 정념과 환각지에 대한 데카르트의 견해는 아무 모순도 없다.

## 5. 몸 자기 앎

동물이 환각지를 의식하지 못한 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 나는 동물이 의식되지 않는 환각지를 가진다는 것은 역시 의식되지 않지만 몸 자기 앎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 의미를 밝히기 위해 현대 심리 철학에서 자기 앎에 대한 드그라지아(D. DeGrazia)

의 분류를 끌어들이어 보자.

드그라지아에 따르면 얇은 지각, 정념, 사유를 포괄하는 넓은 것이고 자기 얇은 여러 종류가 있다.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때 나는 내 생각을 안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대한 나의 얇은 내성 얇(introspective awareness)이라 부를 수 있다.<sup>36)</sup> 또 나는 내 몸 전체와 부분의 위치, 자세, 움직임 알 수 있다. 이 얇은 내 몸이 환경의 다른 부분들과 다르다고 아는 것이며 몸 자기 얇이라 부를 수 있다. 몸 자기 얇은 내 몸의 조건에 대한 얇과 내 행동의 원인에 대한 얇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면 내 행동의 원인이 목마름이라는 얇도 몸 자기 얇이다. 고통, 배고픔, 목마름, 따뜻함, 추움 등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감각은 몸 자기 얇에 속한다.<sup>37)</sup> 데카르트도 두 종류의 자기 얇을 인정한다. 『성찰』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보자.

“내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마다 자동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내 사유에 떠오르는 것에 집중해 보자. 그러면 처음 떠오르는 사유는 내가 얼굴, 손, 팔, 그리고 시체에서 볼 수 있는 팔다리의 모든 기계 구조를 가졌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몸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그 다음 사유는 내가 음식을 먹고 자랐다는 것, 돌아다녔다는 것, 감각 지각과 사유의 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작용을 영혼에 부여했다.”<sup>38)</sup>

36) 현대 철학과 심리학에서 내가 나의 마음과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합쳐서 “마음 이론(theory of mind)”라 부른다. 콜린 외 (2012), 299쪽.

37) 드그라지아는 몸 자기 얇과 내성 얇 말고 사회 자기 얇(social self-awareness)도 자기 얇의 하나로 분류한다. 사회 자기 얇은 내가 남들에게 특정한 기대를 받는 사회의 일부라는 얇이고 남들과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 상사 A가 나보다 후배 B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A에게 잘 보이기 위해 B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수 있다. DeGrazia, D. (2009), 201~219쪽.

38) Descartes, R. (1984), 17쪽.

둘째 사유, 즉 내가 감각 지각과 사유의 작용을 한다는 앎은 감각 지각과 사유를 합쳐서 넓은 뜻에서 사유로 보면 나를 사유하는 것으로 보는 자기 앎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사유의 작용을 하는 것은 영혼이므로 이 자기 앎은 몸 자기 앎과 대비해 영혼 자기 앎이라 부를 수 있다. 영혼 자기 앎은 “나는 사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는 그의 명제에 담겨 있는 자기 앎, 곧 나를 사유하는 것으로 보는 자기 앎이며 드그라지아의 분류에 따르면 내성 앎이다.

첫 사유, 즉 내가 얼굴, 손, 팔, 팔다리의 모든 구조를 가진다는 앎은 몸 자기 앎이라 할 수 있다. 이 앎은 내 몸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나의 앎이고 드그라지아는 이런 자기 앎을 몸 자기 앎이라 규정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사유를 통해 몸 자기 앎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사유를 감각 지각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이해하면 몸 자기 앎은 감각 지각을 통해 얻는 것이 특징이다. 내가 내 얼굴, 손, 팔, 팔다리의 모든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얼굴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알 수도 있고 내 손으로 내 얼굴을 만져보고 알 수도 있다. 내가 내 손을 가진다는 것은 내 손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눈을 감은 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의 촉각을 통해 알 수도 있다. 몸 자기 앎은 감각 지각으로 얻을 수 있다.

데카르트도 『성찰』에서 의심할 수 있는 앎을 설명하면서 나에게 관해 감각 기관으로 얻는 앎을 예로 든다. 그 예는 “내가 여기 불 옆에 앉아 겨울 드레싱 가운을 입고 이 논문을 손에 들고 있다”<sup>39)</sup>는 것이다. 내가 불 옆에 앉아 있다는 앎은 내 몸 전체의 위치에 대한 앎이고 내가 불을 보거나 불의 온기를 느껴서 얻는 앎이다. 내가 겨울 드레싱 가운을 입고 있다는 앎도 가운을 걸친 내 몸의 부분에 대한 앎이고 내가 가운을 보거나 살로 가운의 촉감을 느껴서 얻는 앎이다. 내가 이 논문을 손에 들고

39) Descartes, R. (1984), 13쪽.

있다는 앎도 논문을 든 내 손이라는 몸 부분의 움직임에 대한 앎이고 내가 논문을 들고 있는 손을 보거나 논문의 종이 촉감을 느껴서 얻는 앎이다. 데카르트는 비록 의심할 수 있지만 감각 기관을 통해 얻는 몸 자기 앎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동물도 몸 자기 앎을 가질 수 있다. 영양은 사자를 만나면 자기 몸이나 자기 몸과 사자의 거리를 보고 자기 몸 전체의 위치가 사자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친다. 까치는 하녀를 보면 먹이를 먹고 싶은 바람이라는 지각 또는 정념이 생겨 “안녕”이라고 말한다. 자기 몸의 위치에 대한 영양의 지각이나 먹이를 먹고 싶은 바람이라는 까치의 정념은 모두 물을 마시고 싶은 목마름에 대한 나의 앎처럼 몸 자기 앎이다. 동물도 몸 자기 앎이 있어서 제 몸을 먹지 않는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동물은 영혼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 자기 앎 또는 내성 앎은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환각지를 비롯한 지각 또는 정념은 뇌 또는 솔방울 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인간 뿐 아니라 동물도 가질 수 있다.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지각 또는 정념과 환각지를 의식할 수 없다. 그러나 동물도 의식되지 않는 환각지를 비롯한 지각 또는 정념을 가지기 때문에 의식되지 않는 몸 자기 앎을 가진다.

환각지는 현대 생리학의 눈으로 볼 때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경험에 필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모든 몸 경험을 통합하는 자기에 대한 앎, 즉 몸 자기 앎을 전제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환각지는 모든 지각 또는 정념이 뇌 또는 솔방울 샘에서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몸 자기 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달리 환각지를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 참고문헌

- 김선영 (2013), 「해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인간 본성의 문제와 정념」, 데카르트, 『정념론』, 김선영 옮김, 문예출판사. 187~239.
- 김선영 (2014), 「데카르트에서 무의식 - 몸과 기억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제39집, 267~293.
- 김성환 (2015 출판 예정), 『동물 인지와 데카르트 변호하기』, 메디치미디어.
- 다마지오, 안토니오 (2007), 『스피노자의 뇌: 기쁨, 슬픔, 느낌의 뇌 과학』, 임지원 옮김, 사이언스북스.
- 르두, 조지프 (2006), 『느끼는 뇌』, 최준식 옮김, 학지사.
- 성호경 외 (1989), 『생리학』, 의학문화사.
- 이경희 (2014) 「데카르트의 생리학에서 ‘환각지’의 문제 - 도덕학을 위한 감각과 정념의 생리학」,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유럽사회문화』, 제13호, 191~218.
- 이정원 (1998), 『의식과 자유: 마음의 사회와 자유주의의 피안』, 동녘.
- 코흐 (2006), 『의식의 탐구』, 김미선 옮김, 시그마프레스.
- 콜린, 캐서린 외 (2012), 『심리의 책』, 이경희 외 옮김, 지식갤러리.
- 폭스, 스투어트 (2008), 『생리학』, 박인국 옮김, 라이프사이언스.
- Armstrong, D. (1981), *The Nature of Mind and Other Essays*, Ithaca, NY: Cornell.
- Baars, B. (1988), *A Cognitive Theory of Conscious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ruthers, P. (2000), *Phenomenal Consciousn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ttingham, J. (1978), “‘A Brute to Brutes’: Descartes' Treatment of Animals”, *Philosophy* 53, 551~559.
- DeGrazia, D. (2009), “Self-awareness in Animals”, in R. Lurz (2009), *The Philosophy Animal Min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17.

- Descartes, R. (1984),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in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trans. by J. Cottingham, R. Stoothoff, D. Murdo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Vols., Vol. II.
- Descartes, R. (1985a), *Discourse on the Method*, in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 I.
- Descartes, R. (1985b), *The Passions of the Soul*, in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 I.
- Kenny, A. (1969), *Descartes' Philosophical Letters*. Oxford: Clarendon Press.
- Lycan, W. (1996), *Consciousness and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
- Ramachandran, V. and Hirstein, W. (1998), "The Perception of Phantom Limbs: The D. O. Hebb Lecture", *Brain* 121, 1603~1630.
- Rosenthal, D. (1986), "Two Concepts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Studies*, 49, 329~359.

## Descartes, Phantom Limbs, and Bodily Self-awareness of Animal

Kim, Seonghwan (Daejin Univ.)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re is a coherency between Descartes' views on perceptions or passions including phantom limbs of animals and human. First of all, according to Descartes not only human but also animals can have all the perceptions or passions and phantom limbs, because both of them have animal spirits and pineal gland. Secondly, phantom limbs, perceptions or passions can be conceived by human who has soul but cannot be by animals without their souls. Lastly, if all the perceptions or passions arise in brain, animals also can have nonconscious bodily self-awareness. There is no contradiction between Descartes' views on perceptions or passions and phantom limbs of animals and human, because he allows human both conscious and nonconscious ones but allows animals only nonconscious ones.

**Key words:** Descartes, Phantom limbs, Animal, Perception, Passion, Pineal gland, Consciousness, Unconscious, Nonconscious, Bodily self-awareness

김성환 e-mail: [shkim@daejin.ac.kr](mailto:shkim@daejin.ac.kr)

투 고 일	2015년 10월 14일
심 사 일	2015년 10월 29일
게재확정	2015년 11월 19일